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신희¹ · 괄윤복² · 김주연³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²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³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mpact on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Shin Hee, Kim¹ · Yun Bok, Kwak² · Ju Yeoun, Kim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2호 2024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2, June. 2024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신희¹ · 괄윤복² · 김주연³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²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³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mpact on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Shin Hee, Kim¹ · Yun Bok, Kwak² · Ju Yeoun, Kim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Kunsan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Han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44 nursing students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0, 2023.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depending on needs in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geism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Factors influencing for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was needs in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beta = .18$, $p = .025$) and ageism($\beta = -.33$, $p < .001$), explained 18%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for a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programs to allevi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Key words : Aged, Ageism, Knowledge, Empathy, Nursing stud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4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9.2%로 고령사회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돌봄 인력의 수요와 서비스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 노인 대상자는 만성질환, 기능적 저하,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겪으며, 간호제공자에게 의존도가 높아 총체적인 돌봄 제공이 필요하여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3]. 따라서 노인에게 대한 간호 제공 시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차원을 넘어 노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노인간호에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가 노인과 함께 만나거나 생활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노인에게 대한 이해가 적고, 노인이 의존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미국 간호대학생에 비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우리나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보였다[6]. 이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 노인에게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긍정적인 감정과 인지적 태도를 형성하여 행동의도를 유도하기 때문에[7] 노인과의 접촉의 정도가 노인에게 대해 친밀감 및 좋은 태도를 형성함을 보고하고 있다[8]. 따라서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노인간호 실천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노인차별주의 즉 연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상 집단과의 접촉이 서로 다른 집단 간 편견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6]로 제안되고 있다. 즉 노인과의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갖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8]. 또한, 개인의 신념을 통해 행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인간호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다[7]. 노인간호의도는 노인에게 자발적인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노인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개념이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접촉의 빈도 및 질의 정도를 확인하여 노인간호의도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Ageism)는 연령을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부당한 처우 또는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대한 차별 또는 편견을 의미한다[9].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으며, 임상현장에서 노인에게 대한 차별양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간호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태도는 연령주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인에게 대한 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어[11] 연령주의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주의의 정도를 확인하고,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에게 대한 지식은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사회적 영역의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노인에게 대한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3]. 임상현장에서 노인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게 될 예비 간호사로서의 간호대학생이 노인에게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는 것은 효과적인 노인간호실천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이에 간호대학생의 노인에게 대한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간호의도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면 노인간호 제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감능력은 간호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로 언급되고 있다[12]. 타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은 대상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태도 개선으로 연결되며[3],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고[12],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2]. 또한, 공감능력이 노인의 경험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며 자발적 노인간호의도와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13].

노인간호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노인들의 신체, 정신적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13] 노인간호의도는 간호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고, 노인간호 실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간호의도와 노인접촉 빈도 및 질, 공감에 상관관계가 있으며[6], 연령주의와 노인돌봄태도[11],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15]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감이 노인간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3,12]. 이에 근거하여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유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공감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여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이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이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이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도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크기는 Kim과 Jang[3]의 연구를 근거로 효과크기 .20, 검정력 .95, 요인의 수 10개로 하였을 때 13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근거 하에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44명이 최종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노인접촉 빈도 및 질

Hutchison 등[16]이 개발하여 사용한 노인접촉 척도를 Kim 등[17]이 한국어로 번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 구성은 노인과의 접촉 빈도 3개 문항과 접촉의 질 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고 긍정적인 접촉을 했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 연령주의

연령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raboni 등[18]이 개발하고, Kim 등[17]이 한국어로 번역, 역번역한 연령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사용하였다. Fraboni 등[18]은 FSA 척도를 적대적인 말(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discrimination)의 3개 하위요인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판 FSA 척도는 정서적 회피 7문항, 차별 5문항, 고정관념 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수정되었다[17].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연령주의가 심함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FSA 척도[18]와 한국판 FSA 척도[17]의 Cronbach's α 는 각각 .86, .8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19]가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e(FAQ1)을 Lim[20]이 한국노인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노화에 대한 신체, 생리적 측면 11문항, 심리적 측면 6문항, 사회적 측면 8문항의 내용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5였다.

4) 공감

공감은 보건의료계열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s Student)[21]를 Kim과 Ahn[22]이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부정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10개의 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22].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5) 노인간호의도

노인간호의도는 노인에 대한 간호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지로, Zhang 등[23]이 개발한 척도를 Kim과 Jang[3]이 한국 실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23]와 Kim과 Jang[3]의 연구의 Cronbach's α 는 각 .85,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으며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저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대상자 모집 시 연구자가 편의 표출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는 15~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설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방법, 예측되는 부작용, 자발적 참여와 언제든지 중단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고,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와 소정의 답례품 증정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증정 후 즉시 폐기됨을 알리고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학술지에 출판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및 최소·최댓값을 기술통계로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노인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115명(79.9%), 남자 29명(20.1%)이며, 나이는 평균 24.93 ± 6.52 세였으며, 종교는 '기타' 81명(56.3%), '기독교' 43명(29.9%), '불교' 11명(7.6%), '천주교' 5명(3.5%), '원불교' 4명(2.8%) 순이었다. 봉사시간은 평균 50.71 ± 41.06 시간이었고, 노인대상 봉사경험은 '있다' 89명(61.8%), '없다' 55명(38.2%)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거주경험은 '있다' 75명(52.1%), '없다' 69명(47.9%)이며,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은 '있다' 83명(57.6%), '없다' 61명(42.4%)이고,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은 '필요하다' 127명(88.2%), '필요하지 않다' 17명(11.8%)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연령($F=3.19$, $p=.044$), 노인대상 봉사경험($t=2.73$, $p=.007$), 노인과 거주경험($t=7.67$, $p<.001$), 노인간호학 교육경험($t=2.85$,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연령에 따른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사후 검정 결과 29세 이하가 30대, 40세 이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주의는 노인과 거주경험($t=-2.73$, $p=.007$),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t=-2.65$, $p=.00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의도는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t=3.23$,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3. 대상자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7점 만점에 평균 4.49 ± 1.40 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주의는 4점 만점에 평균 2.00 ± 0.42 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38 ± 2.58 점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36 ± 0.61 점이었다. 노인간호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4 ± 0.8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 노인간호의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연령주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9$, $p<.001$)를 나타냈고, 노인간호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1$, $p=.010$)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연령주의는 공감($r=-.30$, $p<.001$), 노인간호의도($r=-.41$,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공감은 노인간호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8$, $p=.036$)를 나타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접촉 빈도 및 질, 연령주의, 공감, 노인간호의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5.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Ageism, Knowledge of Older Adults, Empathy,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N= 144)

Characteristic	Categories	n(%) or Mean±SD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Ageism		Knowledge of older adults		Empathy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Male	29(20.1)	4.51±1.49	-.079	2.00±0.41	-0.14	10.62±2.41	1.78	5.37±0.63	-0.273	3.70±0.78	-0.44
	Female	115(79.9)	4.49±1.39	(.937)	2.00±0.42	(.890)	11.57±2.60	(.078)	5.34±0.63	(.785)	3.62±0.84	(.661)
Age(yrs)	24.93±6.52											
	≤29 ^a	124(86.1)	4.39±1.39	3.19 (.044)	1.99±0.40	1.41 (.247)	11.23±2.62	2.24 (.110)	5.32±0.63	0.54 (.586)	3.56±0.84	3.60 (.290)
	30~39 ^b	13(9.0)	4.85±1.55	a<b,c	1.90±0.49		11.69±1.97		5.50±0.54		4.11±0.65	
	≥40 ^c	7(4.9)	5.64±0.47		2.22±0.46		13.30±2.16		5.46±0.77		4.06±0.56	
Religion	Christian ^a	43(29.9)	4.60±1.30		2.06±0.40		11.19±2.22		5.37±0.58		3.71±0.85	
	Buddhism ^b	11(7.6)	4.15±1.66		2.05±0.48		11.18±2.44		5.48±0.53		3.36±1.09	
	Catholic ^c	5(3.5)	4.70±1.63	.34 (.850)	1.70±0.18	1.30 (.275)	11.00±1.58	0.32 (.863)	5.08±0.32	0.42 (.791)	3.28±0.44	0.64 (.637)
	Won Buddhism ^d	4(2.8)	4.88±1.76		1.76±0.38		10.50±1.29		5.50±0.91		3.75±0.96	
	Etc ^e	81(56.3)	4.45±1.41		1.98±0.42		11.57±2.88		5.34±0.67		3.65±0.79	
Volunteer time(hours)	50.71±41.06											
	0 to 49 ^a	73(50.7)	4.55±1.30	1.25 (.289)	2.01±0.42	1.37 (.257)	11.32±2.60	0.83 (.438)	5.25±0.60	1.78 (.172)	3.67±0.83	1.62 (.202)
	50 to 99 ^b	55(38.2)	4.40±1.52		2.03±0.40		11.18±2.56		5.39±0.67		3.51±0.81	
	100 over ^c	16(11.1)	5.01±1.44		1.84±0.43		12.13±2.60		5.57±0.51		3.91±0.88	
Volunteer experience	Yes	89(61.8)	4.74±1.32	2.73 (.007)	1.96±0.39	-1.21 (.227)	11.58±2.51	1.24 (.217)	5.36±0.65	0.21 (.983)	3.69±0.85	1.08 (.284)
	No	55(38.2)	4.10±1.45		2.05±0.46		11.04±2.68		5.36±0.60		3.54±0.78	
Living experience with older adults	Yes	75(52.1)	5.22±1.16	7.67 (<.001)	1.91±0.39	-2.73 (.007)	11.65±2.63	1.35 (.178)	5.39±0.63	0.86 (.392)	3.64±0.83	0.02 (.985)
	No	69(47.9)	3.71±1.21		2.09±0.42		11.07±2.50		5.30±0.58		3.63±0.84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older adults	Yes	83(57.6)	4.77±1.34	2.85 (.005)	2.02±.037	0.90 (.372)	11.64±2.68	1.44 (.153)	5.36±0.63	0.28 (.784)	3.67±0.77	0.53 (.598)
	No	61(42.4)	4.11±1.41		1.96±0.47		11.02±2.42		5.34±0.61		3.59±0.91	
Needs in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Yes	127(88.2)	4.57±1.35	1.93 (.055)	1.96±0.39	-2.65 (.009)	11.36±2.55	-0.16 (.871)	5.37±0.63	1.02 (.380)	3.71±0.78	3.23 (.002)
	No	17(11.8)	3.88±1.64		2.24±0.53		11.47±2.87		5.20±0.58		3.05±0.97	

Table 2.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Ageism, Knowledge of Older Adults, Empathy,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N= 144)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4.49±1.40	1.33 ~ 7.00	1 ~ 7
Ageism	2.00±0.42	1.17 ~ 3.44	1 ~ 4
Knowledge of older adults	11.38±2.58	6.00 ~ 18.00	0 ~ 25
Empathy	5.36±0.61	3.94 ~ 7.00	1 ~ 7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3.64±0.83	1.40 ~ 5.00	1 ~ 5

Table 3. Correlation among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Ageism, Knowledge of Older Adults, Empathy,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N=144$)

Variables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Ageism	Knowledge of older adults	Empathy
	$r(p)$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1			
Ageism	-.39(<.001)	1		
Knowledge of older adults	.13(.130)	-.09(.300)	1	
Empathy	.04(.603)	-.30(<.001)	.05(.530)	1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21(.010)	-.41(<.001)	.08(.344)	.18(.036)

인하기 위하여 노인접촉 빈도 및 질, 노인에 대한 지식, 연령주의, 공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을 더미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 d 는 1.959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02에서 1.33으로 기준치인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 연령주의가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의도에 대하여 연령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beta=0.18, p=.025$), 연령주의가 낮을수록($\beta=-0.33, p<.001$) 노인간호의도가 높아지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약 18.0%였다($F=7.20, p<.001$)

(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7점 만점에 4.49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나타난 3.76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 4학년으로 임상실습 중 노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이러한 경험이 간호대학생과 노인과의 관계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8].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이 낮을수록 연

Table 4.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s to Care for the Elderly ($N=14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32	0.87		4.99	<.001
Needs in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ref.no)	0.45	0.20	0.18	2.27	.025
Frequency and quality of contact with older adults	0.03	0.05	0.05	0.60	.551
Ageism	-0.66	0.17	-0.33	-3.81	<.001
Knowledge of older adults	0.01	0.03	0.04	0.57	.570
Empathy	0.13	0.19	0.06	0.70	.700

 $F=7.20, p<.001, R^2=.21, \text{Adj. } R^2=.18$

SE=Standardized Error; ref.= Reference.

령주의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17],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교육현장과 임상실습현장에서 긍정적인 노인과 접촉 경험 프로그램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령주의는 4점 만점에 2.00점으로, 간호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2.21점,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의 2.21점보다 낮은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4학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임상실습현장에서 노인환자를 접촉하고 간호제공을 경험함으로써 연령주의가 낮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6개월 이상의 간호사는 담당 환자가 많고 만성질환 병력이 있는 노인환자와의 소통과 접촉 시 부담감을 느껴 연령주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에게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긍정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고, 간호사에게는 충분하게 노인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하여 업무 부담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11.38점이었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11.26점과 치위생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나타난 11.27점으로 본 연구결과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유사하였으나, 이는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이 50% 미만임을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최신정보를 반영한 교육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노인에 대한 지식의 하위 영역별 점수에 대한 비교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후 노인에 대한 지식 증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은 7점 만점에 5.3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의 5.80점보다는 낮았고, 치과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21]의 5.22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 4학년으로 학년이 높아

질수록 임상실습과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감능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27]와 유사하여 추후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수준별 순차적인 공감능력 수준 사정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는 5점 만점에 3.64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3.50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나타난 3.50점과 유사한 점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 4학년인 경우로, 노인간호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노인에게 간호제공을 할 의도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의도 점수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노인을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우 노인간호의도가 높은 것[13]으로 볼 때,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을 직접 간호하는 경험에 노출되는 임상실습 경험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노인간호의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는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따라 노인간호의도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노인간호학 교과목과 실습은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장소와 대상자의 기능 수준에 따른 노인간호를 학습하고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본 연구 결과는 노인간호 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의 경우에 노인간호의도가 높은 연구[3]와 유사하며, 노인간호학 교과목 이수 및 실습경험이 노인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여 노인간호의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는 노인접촉 빈도 및 질과 양의 상관관계, 연령주의와 음의 상관관계, 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노인간호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보도가 노인간호의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접촉 빈도와 질을 증진시키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간호의도와 연령주의의 상관관계의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연령주의가 세대갈등과 관련되고, 노인의 특성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29] 노인간호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으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2], 노인간호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이 높을수록, 연령주의가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을 향상시키고, 연령주의를 감소시키며, 공감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노인간호의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과 연령주의로 나타났다. 즉,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와 연령주의가 낮을수록 노인간호의도가 높아진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간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과 간호대학생이 취업 후에 대면할 간호대상자가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노인간호학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전공교수 역량강화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및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연령주의가 낮을수록 노인간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29]와 유사하였다. 연령주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행동과 관련되며[24], 노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노인간호의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5]. 따라서 노인간호학의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며,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과 다양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은 노인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3]에서 노인접촉 빈도 및 질이 노인간호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과 상반된 결과로, 노인대상 봉사경험과 노인간

호실습이 노인간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회성의 노인과 접촉 경험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질 높은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노인접촉 빈도 및 질과 노인간호의도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와 다양한 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공감은 노인간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연구[3,30]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추후 노인에 대한 지식과 공감 및 다양한 변수와 노인간호의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 및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는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는 노인접촉 빈도 및 질과 양의 상관관계, 연령주의와 음의 상관관계, 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노인간호학 교과목 개설 필요성과 연령주의가 노인간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의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situation board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4 [cited 2024 June 21]. Available from: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

- PopulationDashBoardMain.do.
2. Kim JH, Jeong HS. Influencing factor on the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nurses working at geriatric hospitals: focusing on empathy.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2):840-850.
<https://doi.org/10.5392/JKCA.2013.13.12.840>
 3. Kim YS, Jang I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willingness towards older adult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3):1669-1683.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69>
 4. Kim YK, Kwon SH.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7;19(3):203-213.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5. Yu HS, Kim KR, Hwang IS. A study on dementia-related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of active senior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022;31(1):71-85.
<https://doi.org/10.35159/kjss.2022.2.31.1.71>
 6. Jang IS, Oh DN, Kim YS.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care for older adul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ciences*. 2019;6(4):426-431.
<https://doi.org/10.1016/j.ijnss.2019.09.004>
 7. KO EK, Jung MS. Children's attitude and intention of behavior towards elderly- focused on children's perceived valu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08;8(11):323-337.
 8. Apriceno M, Levy S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of effective programs for reducing ageism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023;42(6):1356-1375.
<https://doi.org/10.1177/07334648231165266>
 9. Kim JH. The experience of ageism and meaning of aging among the Korean elderly by qualitative analy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15;38(1):69-104.
 10. Oh HI, Ju KH, Kim JH. A study on the ageism and age-integrated percep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 groups with experience in treating elderly pati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8; 61:59-91.
<https://doi.org/10.16975/kjfs.2018..61.003>
 11. Yeom EY. The effect of ageism, elderly human right on attitude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Wellness*. 2022;17(2) :345-350. <http://doi.org/10.21097/ksw.2022.5.17.2.345>
 12. Yang, SY.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7(3):1699-1710.
 13. Park JY.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care willingness towards older adults.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22;42(1):37-50.
<https://doi.org/10.31888/JKGS.2022.42.1.37>
 14. Yun MJ.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17(11):419-426.
<http://doi.org/10.14400/JDC.2019.17.11.419>
 15. Kwon SH, Kang HJ, Youn SC, Kim YS. The convergent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4):303-314.
<http://doi.org/10.14400/JDC.2016.14.4.303>
 16. Hutchison P, Fo E, Laas A, Matharu J, Urzi S.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010;36:1008-1021.
<https://doi.org/10.1080/03601271003723586>
 17. Kim JY, Kim MH, Min KH.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 (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2;26(4): 89-106.
<https://doi.org/10.21193/kjspp.2012.26.4.006>
18. Ozel Bilim I, Kutlu FY. The psychometric properti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ut-off value for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in a sampling of healthcare worker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2021;57(1):9-19.
<https://doi.org/10.1111/ppc.12521>
 19. Kunkel S, Palmore EB, Whittington FJ.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aging: current research and developments. 2nd ed. Santa Barbara: Praeger; 2009. p. 497-506.
 20. Lim Y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Gwangju: Chosun University; 2002. p. 1-51.
 21. Fields SK, Mahan P, Tillman P, Harris J, Maxwell K, Hojat M. Measuring empathy in healthcare profession students using the Jefferson scale of physician empathy: health provider-student version.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2011;25(4): 287-293.
<https://doi.org/10.3109/13561820.2011.566648>
 22. Kim JS, Ahn SK.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efferson scale of empathy-health professions students for measuring empath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 24(3):259-268.
<http://doi.org/10.5977/jkasne.2018.24.3.259>
 23. Zhang S, Liu YH, Zhang HF, Meng LN, Liu PX. Determinan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are willingness towards the elderly in China: attitudes, gratitude and knowledge. *Nurse Education Today*. 2016;43:28-33.
<https://doi.org/10.1016/j.nedt.2016.04.021>
 24. Ha SJ. Factors affecting elderly discrim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amily health, and imag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3. p. 1-63.
 25. Kim JA, Ha JY.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 general hospit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9;25(5):393-403.
<http://doi.org/10.1111/jkana.2019.25.5.393>
 26. Kim YS, Lee JH.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2023;6(2):129-139.
<http://doi.org/10.22753/JKDHS/2023.6.2.129>
 27. Chung MS.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332-340.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32>
 28. Baik SH, Shin DS, Chang SO, Hong GR, Kwon S, Kim MS, et al. Baccalaureate competencies and curriculum in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8;20(2):76-85.
<https://doi.org/10.17079/jkgn.2018.20.2.76>
 29. Kwak YB, Lee EH, Oh MS.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humanism, and ageism on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4;25(1):440-449.
<https://doi.org/10.5762/KAIS.2024.25.1.440>
 30. Kwon SH, Kang HJ, Youn SC, Kim YS. The convergent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4):303-314.
<https://doi.org/10.14400/JDC.2016.14.4.303>